

코로나19로 일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동과 사람들의 만남은 제한되고, 마스크는 우리와 한 몸이 됐다.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시대에 적응해가며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때, 더욱 주목받는 곳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우리 생활까지 아우르는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이들을 육성하는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환경융합과학부다.

사진 김재이

일터에서 일상까지 책임지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김준호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사내기자

인간과 환경의 건강함과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환경은 매일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전염병은 확산되고, 기후변화로 홍수가 나고 산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위협,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건강장애 등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학문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보건환경융합과학이다.

“보건환경융합과학은 질병을 예방하고 인간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과학기술(Health Science Technology)과 인간 주위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직업환경 등)의 오염물질을 관리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 Science Technology)이 융합된 학문입니다.”

학과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아우르며 활약할 보건, 의료, 환경, 에너지 분야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고 변상훈 교수(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말한다. 유일하게 서울에 자리한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2014년 학부 개편 이후 연구·분석 분야를

강화해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진 만큼, 질병을 유발하는 요소도 다양하고 복잡적이기 때문에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융합된 학문이 필요했다. 그래서 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세부 전공으로 환경보건안전(Environmental Health Safety)과 보건의료(Health and Medical Science)로 나누었다. 환경보건안전은 수질, 대기 유해물질, 환경유해물질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방사선에 대한 연구를, 의료보건에서는 공중보건학, 면역, 생리학 등의 진단의과학과 원자력 및 방사선의 이용, 진단 및 치료 등을 연구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

글로벌 보건환경 전문가로

산업현장의 안전은 물론 최근에는 기업 경영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가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발효와 함께, 기업의 책임과 고민이 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는 사람과 환경을 동일시하는 보건환경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변상훈 교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도 보건·의료·환경기술을 21세기 유망 과학 기술 분야로 선정, 전략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변상훈 교수는 기업들이 환경과 보건, 사회책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라고 말한다.

이에 보건환경융합과학부의 책임 역시 커지고 있다. 보건환경학적인 측정과 평가를 수행하고 보건환경 기술을 개발, 발전시킬 전문 인재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주전자 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전자란, 주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지니라는 말인데요,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학문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전문가를 향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최고가 될 가능성이 무한한 제자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학과를 믿고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학과 소개



급변하는 시기, 앞으로의 발전성이 가장 큰 분야인 보건환경 분야. 이미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졸업생들은 정부부처,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보건환경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와 다양한 환경 유해인자에 둘러싸여 있지만, 곧 나아질 거라는 희망과 기대는 그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